



인권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 영국에서 만난 사람들

이창곤 | 한겨레 사회부 기자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민문제는 가진 자의 시혜가 아니며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이다. 난민 문제는 인권을 위한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

## 인종차별이 적은 곳으로 온 친구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에 머물고 있는 필자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흑인을 알게 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사이드란 이름의 이 사내는 서른 일곱의 나이지만 이마에 주름살이 뚜렷해 마치 중늙은이 같다. 하지만 자신이 왕 축구 팬이란 사실을 자랑이나하듯 늘 챙이 있는 모자를 거꾸로 쓰고 다니길 즐긴다.

본디 그는 아프리카 동북단에 있는 에리트리아 출신이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피식민과 전란의 고통에 휩싸였다. 많은 아프리카처럼 그도 결국 지난 1988년 고국을 떠났다. 1988년 홀로 스웨덴행을 결행한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1993년에야 독립국이 됐다.) 그의 난민 요청을 스웨덴 정부가 받아들여지면서 뒤에 스웨덴 국적을 얻은 그는 2002년 인종차별이 더 적고 난민들이 살기에는 더 좋은 곳을 찾아 다시 런던행 비

행기에 올랐다.

난민으로서 그의 영국 생활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임대주택에다 한달에 우리 돈으로 60여 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영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아들과 아내 등 세식구가 그럭저럭 먹고 산다고 한다. 더욱이 영국 정부에 딸린 직업센터는 직업을 구할 때까지 그가 다니는 어학센터의 수강료까지 거의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엄격해지는 정부의 규정

신에 이르는 나이에도 아랑곳 없이 유명 팝 가수의 콘서트를 찾아가갈 정도로 낭만적인 사나이 미카엘. 시베리아 소수민족 출신의 이 러시아인은 가끔 버밍엄 중앙도서관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또 다른 친구다. 그 또한 지난 2002년 모스크바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그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모스크바에

강하게 불어닥친 인종차별주의적 폭력을 피해 난민 길에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난민 요청은 영국 정부로부터 거부됐다. 러시아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여 미카엘은 결국 법정에서 난민요청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지금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에게 늘 짓던 환한 웃음을 거두고 나에게 내일은 없다며 말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난민지원 비용에다 불법 체류를 노리는 이국인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영국 정부는 물론 재판부의 태도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카엘도 사이드와 똑같이 난민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 생활비와 작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생활하고 있다.

### 인권 소중히 여기는 인도주의의 절실

19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받아 피난처를 요구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안전한 피난처에 머물며 해당 국가의 합법적 체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기본적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실 난민과 망명자 등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와 지원은 최근들어 심사 과정이 다소 뻣뻣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도주의적 방향에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데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자랑하는 한국은 그동안 갈 곳 없는 일부 아시안들의 난민요청을 거칠게 뿌리치기만 하는 데만 익숙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는 우리 정부도 난민협약 체결의 기본적인 취지를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난민 문제는 결코 가진 자의 시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6월20일을 세계 난민의 날을 정해 이를 기념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은 현재 130여 개국에서 2,200여만 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